

곡성군, 사과 품은 '토란파이' 개발

2월 식품환경연구센터와 용역계약 체결 식감개선·기존 토핑 지역농산물 대체

곡성군은 곡성 토란을 활용하여 자체개발한 가공품인 토란파이를 지역농산물인 사과를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지난 2월 말 식품환경연구센터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기존 토란파이의 식감개선 및 기존 토핑을 지역농산물로 대체한 새로운 토란파이를 개발 추진하였다.

지난 용역 중간보고회에 토란파이 가공능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기존제품, 개선제품, 신제품 3종 등 총 5가지에 대한 관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선호도가 좋았던 신제품 1종을 선택하여 토란파이 개발에 집중해

왔다.

19일 추진한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농산물인 사과말랭이를 넣은 반죽에 기존 토핑인 아몬드슬라이스 대체 재료로 토란으로 만든 토란소보로를 토핑한 토란파이를 신제품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최종 결과물로 도출된 식감 및 보존을 용이하게 한 개선된 토란파이와 사과를 넣은 토란파이 신제품은 토란 가공능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세트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신제품 1종과 개선제품 1종은 유통기한설정



및 영양성분분석 실험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다가갈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토란파이는 사과의 상큼함이 더해져 소비자대상 관능평가 실

시결과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며 "토란파이를 통해 젊은 세대도 토란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토란가공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나주시, 25일 영산포풍물시장 '시골장터 이동 신문고' 운영

중앙기관·지자체·공공기관 행정 민원 해소

나주시는 오는 25일 영산포풍물시장에서 '시골장터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골장터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장터를 순회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소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상담 서비스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권익위 조사관 5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직원 2명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분야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에 관련된 모든 행정 분야 상담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에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상담 장소는 영산포풍물시장 입구 좌측 주차장 내 상담버스를 이용해 운영된다.

별도 사전 예약 없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효경 나주시 감사실장은 "이번 시골장터 이동 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평소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담양군, 제1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 우수정원 5곳 선정

최우수상 고서 '명지원'

담양군은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추진한 '제1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 결과 최종 5개소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응모된 정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1개소, 장려상 3개소 등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정원은 상장과 부상으로 예쁜 정원을 인증하는 현판이 주어진다.

심사위원회는 심미적 가치와 디자인, 유지관리가 뛰어난 정원이 많았다고 평가했으며 선정된 정원



들은 생태정원도시 담양을 알리고 고장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우수정원은 최우수상 고서면 '명지원', 우수상 대덕면 '달빛여랑', 장려상 장평면 '한옥에



명지원

서, '정원이 예쁜집', 월산면 '여기에 모인 우리정원'이 각각 선정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의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하고 이를 더 아름답게 가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85% 지원"

이달 26일까지 비 신청... 룹은 7월 중순까지

장성군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성군이 추진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올해 예상 사업량은 1800ha 규모다.

보험료 지원 규모는 군비로 5%를 인상해 총 85%를 지원 중이다. 유기농 인증 농가는 보험료 전액

을 지원한다.

6월 중순까지 사과, 배, 단감, 원예시설 등 1113ha 규모 1473농가가 가입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다. 배에 대한 가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며, 룹은 7월 17일까지 받는다. 양파와 마늘은 10~11월, 포도, 복숭아는 11월에 접수할 수 있다. 원예 시설은 11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배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해, 읍·면 단위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가입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61-390-8428)로 하면 된다.

장성=박종영 기자



화순군, '대표 맛집 선정' 2차 평가

내달 10일까지 군청 누리집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화순군이 지역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한 2차 평가를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2차 평가는 군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메인 왼쪽 상단이나 참여마당(군민참여)의 <화순 맛집 추천>에 접속해 맛집을 추천하면 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맛집 공모를 통해 신청하거나 추천된 업소 중 1차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일반음식점 36곳과 카페 9곳이 대상이다.

적격 여부 심사와 추천 집계

후 업소를 직접 방문해 관광지 연계 가능성, 영업장 위생 평가 등 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일반음식점 25곳 내외, 카페 5곳 내외를 맛집으로 선정한다.

선정 업소는 화순군 맛집 가이드북 <화순 8경 맛집 기행>에 수록될 예정이다.

군은 관광지와 먹거리(맛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화순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맛집 발굴에 나섰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속 일상 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